

연탄 생산보조금 단계적 폐지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

<보도내용>

- 2025.11.30.(일). 조선비즈 「정부 연탄 보조금 폐지에 15% 오르는 연탄값...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 직격타」 보도 관련입니다.

<정부 입장>

- 2025년 8월에 개최된 「나라재정 절약 간담회」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연탄 생산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다만, 연탄 생산보조금을 즉각 폐지할 경우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,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연탄 생산보조금을 2년간 매년 장당 100원씩(총 2년간 장당 200원)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.

* 올 겨울철 연탄 판매 고시가격은 내년도 개정 전까지 전년과 동일(장당 639원)

- 연탄 생산보조금 축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약 4만 2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탄 쿠폰의 지원 단가*를 상향할 계획입니다.

* 정부예산안 기준 가구당 지원 단가: ('25년) 47.2만원 → ('26년) 55.1만원

- 아울러, 취약계층의 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연탄 보일러를 다른 난방기기로 교체하는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 석탄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정기 (044-203-5260)
		담당자	사무관	이성재 (044-203-5262)
담당 부서	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	책임자	팀 장	김도현 (044-201-7510)
		담당자	사무관	오병주 (044-201-6962)